

6세기 전후 신라의 지방통치와 연산동고분군*

선 석 열**

| 목 차 |

- I. 머리말
- II. 신라의 지방통치과정과 금석문
- III. 신라의 부산지배와 연산동고분군
- IV. 맺음말

| 국문초록 |

사로국을 모체로 하는 신라는 3세기 말엽부터 4세기 전반까지 진한 제소국을 복속하여 신라국가로 성립되었다. 그러나 복속지역을 직접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하고 간접지배를 유지하였다. 신라의 간접지배방식은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공납지배였다. 그 이유는 5세기 전반까지 신라는 고구려의 내정 간섭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눌지왕의 자립 이후 신라는 지배층이 일치단결하고 국내외적으로 안정되어 왕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체제가 정비되어 갔다. 505년에 지방제도를 시행한 이후, 신라는 지방에 관리와 군대를 파견하여 직접적인 지방통치가 행해지기 시작하였다. 지방통치와 관련한 금석문 자료를 통해 보면, 540

* 본 논고는 2016년 3월 25일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주최의 『연산동 고총고분과 그 피장자들』이라는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신라의 지방통치과정과 연산동고분군』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 부경대학교 사학과 / sunsy58@hanmail.net

년대 이후에 이르러 중앙관을 비롯하여 지방관과 재지세력의 체계적인 구분이 명확하며 지방통치체제를 갖추어 통치를 행하였다.

부산지역은 460년대에 신라에 병합되었으나, 기장지역을 제외한 부산지역은 여전히 신라의 간접지배 아래에 있었다. 신라는 왜의 침략을 막기 위해 기장을 해군기지인 임해진으로 활용하였다. 532년에 금관가야가 신라에 병합된 이후에 이르러 독로국의 중심인 연산동고분군을 비롯한 동래지역은 독자적인 세력으로 존재하다가 신라의 직접적인 통치 하에 편제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라의 체계적인 부산지역 통치는 540년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하였으며, 그 이전의 부산지역은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연산동고분군은 가야 문화 유적이라 해야 한다.

핵심어: 신라의 간접지배, 체계적 지배, 독로국, 연산동고분군, 가야 문화 유적

I. 머리말

주지하듯이 신라는 사로국을 모체로 진한 제소국을 정복하여 성립된 국가이다. 문헌 기록에 의하면 서기 1세기 후반부터 3세기까지 이들 소국을 정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고기년의 신빙성 여부 문제로 인하여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부산의 거칠산국이 울산의 우시산국과 함께 서기 1세기 후반 탈해왕대에 정복되었다는 기록도 문제가 된다. 3세기 중엽의 사실로 전하는 중국의 『삼국지』에 부산의 독로국¹⁾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로국으로 존속한 시기에 축조된 고분유적으로는 복천동고분군과

1) 『삼국사기』에는 부산에 거칠산국이 있었다고 전하지만, 이는 부산지역이 신라에 의해 병합되어 균형으로 편제될 때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경덕왕 때에 거칠산군이 동래군으로 개명되었는데, 이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조에 보이는 독로국과 유사한 점에서 신라에 병합되기 이전 부산의 고대 국명은 독로국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연산동고분군 등이 대표적이다. 고고학계에서는 이들 고분군은 6세기 전반까지 축조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이들 고분군이 신라 고분²⁾인가 가야 고분³⁾인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독로국은 적어도 6세기 전후까지 존속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로국의 진한 제소국 병합과정과도 다른 상황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다.

첫째, 사로국의 소국 정복 시기와 통제 방식을 먼저 살펴보고 신라의 지방통치의 성립과정을 고찰하겠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505년부터 주군-행정촌 체제가 시작되었다고 하나, 당시의 1차 사료인 금석문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둘째, 부산 독로국이 언제 복속되었으며, 어떻게 통제되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신라가 직접적인 지방통치가 시행된 것은 6세기에 이르러서이기 때문이다. 앞 장의 신라 지방통치의 성립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신라의 직접적인 지방통치가 부산지역에 미치는 과정에 대해 살펴 보겠다.

II. 신라의 지방통치과정과 금석문

1. 소국 정복과 통제 방식

-
- 2) 김대환, 「부산지역 금관가야설의 검토」 『영남고고학』 33, 2003. 이희준,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2007. 주보돈, 「가야사 새로 읽기」 『가야 문화권 실체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2014. 김용성, 『신라 고고학의 탐색』, 진인진, 2015.
- 3) 신경철, 「김해대성동·동래복천동고분군 점묘-금관가야 이해의 일단」 『부대사학』 19, 1995. 김두철, 「연산동고분군과 복천동고분군」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부산대학교박물관, 2013.

주지하듯이 신라는 진한의 사로국을 모태로 하여 주변 소국들을 복속하고 통제하면서 고대국가로 발전한 것이다.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의하면 사로국이 진한의 소국들을 복속한 기록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초기기록에 보이는 소국 정복기사의 기년 수정연대

번호	國名	기록 연대	위치	정복방식	수정 연대
1	于尸山國	脫解王代(57~80)	울산	정복	229~262년
2	居柒山國	脫解王代(57~80)	동래	정복	229~262년?
3	屈阿火村	婆娑王代(80~112)	울산	정복	262~294년
4	湑汁伐國	婆娑王 23년(102)	안강	정복	284년
5	悉直谷國	婆娑王 23년(102)	삼척	내항	284년
6	押督國	①婆娑王 23년(102)	경산	내항	284년
		②祗摩王代		정복	294~316년
7	召文國	伐休王 2년(185)	의성	정복	295년
8	甘文國	助賁王 2년(231)	개령	정복	341년
9	骨伐國	助賁王 7년(236)	영천	내항	347년
10	沙梁伐國	沾解王代(247~261)	상주	정복	354~371년
11	古寧加耶	沾解王代(247~261)	상주	정복	354~371년
12	伊西國	儒禮王 14년(297)이전	청도	정복	371년 이전
13	河西良	?	강릉	후속	284년 이후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삼국사기』의 기록 연대 상으로 사로국이 진한 소국을 서기 1세기 후반부터 3세기 말까지 정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3세기 중엽까지의 상황을 전하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의하면 3세기 중엽까지 진한의 12국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위의 소국 정복 연대는 문제가 된다.

기왕의 연구에서 신라 상고 왕실의 기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내물왕 이전의 초기 왕실의 존재를 부정하거나,⁴⁾ 이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기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견해도 있었다.⁵⁾ 그리고 위와 같은 상고 왕실의 문제를 해결하여 상고 기년을 수정하려는 시각이 제시되기도 하였다.⁶⁾ 그러나 그들 연구는 삼성 왕실의 왕위계승을 순차적으로 보았던 점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그 후 1990년대의 연구에서도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전후 계승의 왕의 재위 기간이 중복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 왔다.

필자는 각 왕실의 세대간의 연령 차이를 해결한 다음, 당시의 같은 인물이 박씨왕대에서 석씨왕대에 걸쳐서 그것도 몇 주장을 넘어 관등을 승진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박씨왕통과 석씨왕통이 병립하였음을 밝혀 내었다. 특히 석씨왕통 사이에 있던 미추왕은 실제로 내물왕 앞에 재위한 것으로 파악하였다.⁷⁾ 상고기년을 재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기년

-
- 4) 今西龍, 『新羅史通說』, 『新羅史研究』, 國書刊行會, 1933. 末松保和, 『新羅上古世系考』, 『(京城帝大)史學論叢』, 1938; 『新羅史의 諸問題』, 東洋文庫, 1954. 井上秀雄, 『新羅朴氏王系の成立』 『朝鮮學報』48, 1968; 『新羅史基礎研究』, 東大出版會, 1974.
 - 5)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上)』 『韓國學報』2, 1976; 『古朝鮮·三韓史研究』, 일조각, 1989. 李鍾旭,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영남대학교출판부, 1980. 崔在錫, 『新羅王室的王位繼承』 『歷史學報』98, 1983; 『韓國古代社會史研究』, 일지사, 1987.
 - 6) 金哲堧, 『新羅 上古世系와 그 紀年』 『歷史學報』17·18합집, 1962; 『韓國古代社會研究』, 지식산업사, 1975. 金光洙, 『新羅 上古世系の 再構成 試圖』, 『東洋學』3, 1973. 李仁哲, 『新羅上古世系の 新解釋』 『清溪史學』4, 1987. 姜鍾薰, 『新羅 上古紀年の 再檢討』 『韓國史論』26(서울대 국사학과), 1991.
 - 7) 선석열, 『신라국가성립과정연구』, 혜안, 2001, 27~44쪽.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의 승려로 나오는 阿道는 중국 曹魏代 正始 연간(240~248)에 고구려에 사신으로 온 我廩摩의 사생아로서 260년대에 曹魏에 가서 求法하고 고구려로 귀국하였다가 미추왕 2년에 신라에 왔다고 한다(동권3, 흥법3 아도기라조). 그러나 순도와 아도는 각각 소수림왕 때인 372년과 374년에 고구려에 온 것으로 되어 있다(동권3, 흥법3 순도조려조). 『삼국사기』에도 前秦의 승려인 순도와 아도가 고구려에 온 것이 각각 소수림왕 2년(372)와 4년으로 되어 있다(동권18, 고구려본기6 소수림왕 2년 6월조 및 4년조). 따라서 아도가 미추왕 때에 왔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미추왕의 재위기간인 23년은 내물왕 재위시기의 전반부(356~378)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一然이 고구려본기를 참고하여 고찰한 것이 정확하다고 하므로, 아도 역시 순도와 같은 前秦의 승려로서 고구려에서 신라로 왔다(李基白, 『三國時代 佛教傳來와 그 社會的 性格』 『歷史學報』6, 1954; 『新羅思想史研究』, 일조각, 1986, 4~5쪽)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을 제시하였다.

<표 2> 신라 상고 왕실세계의 재조정 기년표⁸⁾

박씨 왕통					김씨 왕통				
유리왕 229~	파사왕 262~	지마왕 294~	일성왕 316~	아달라왕 336~	미추왕 356~	내물왕 378~	실성왕 402~	눌지왕 417~	자비왕 458~479
탈해왕 229~262	구주 각간	별휴왕 294~	내해왕 306~	조분왕 340~	침해왕 354~	유례왕 371~	기림왕 385~	흘해왕 397~437	소멸
석씨 왕통									

위와 같이 신라 상고 왕실의 기년을 조정해 볼 때 사로국이 진한 소국들을 정복한 연대는 <표 1>의 수정 연대와 같이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거칠산국 즉 변한의 독로국의 경우는 해당 기년의 연대에 신라에게 정복·병합된 것은 아니다. 이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다.

사로국이 진한 제소국 정복을 달성한 4세기 중엽 이후에 변화된 진한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료를 통해 볼 수 있다.

(가)1 내물이사금 26년(371) 衛頭를 보내 前秦에 토산물을 바쳤다. 苻堅이 위두에게 물었다. “경이 말하는 해동의 일이 옛날과 같지 않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위두가] 답해 말했다.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시대가 변혁되고 이름이 바뀌었으니 지금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⁹⁾

주지하다시피 이 기록은 소위 신라와 중국 전진(351~394)의 교섭기 사로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시대가 변혁되고 이름이 바뀌었으니 신라국

8) 선석열, 앞의 책, 2001, 55쪽.

9)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가가 이전과 다르게 크게 성장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앞의 검토와 결부시켜 언급하면, 특히 “중국과 마찬가지로 시대가 변혁되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 것은 당시 중국에서 왕조가 바뀌고 있었듯이 신라도 김씨왕통이 새로이 성립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신라국가는 사로국에서 출발하여 3세기 후반부터 4세기 중엽까지 진한 제소국을 정복하여 4세기 후반에 이르러 그 존재가 중국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 의해 인식된 이 존재는 그저 단순히 그 전에 사로국으로 존재했었고 진한지역의 대표자라는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즉 이 시기가 중국에서 변혁의 시대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한지역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변혁이 있었고, 그것은 다름 아닌 사로국의 신라국가로의 등장이었다.

사로국에서 신라국가로의 성립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 복속소국에 대한 통제일 것이다. 그에 관해서는 다음 사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가)1 파사이사금 5년(↓¹⁰266) 5월 古陀郡主가 靑牛를 바쳤다.
- (가)2 동왕 15년(↓276) 8월 왕이 闕川에서 군대를 사열하였다.
- (가)3 동왕 25년(↓286) 7월 悉直이 배반하니 군대를 징발하여 평정하고 그 나머지 무리를 남쪽 변경으로 옮겼다.
- (가)4 동왕 27년(↓288) 정월 押督에 행차해 빈궁한 자들을 진휼했다. 3월에 압독에서 돌아왔다.
- (가)5 일성이사금 13년(↓328) 10월 押督이 배반하니 군대를 징발하여 평정하고 그 나머지 무리를 남쪽 땅으로 옮겼다.¹¹⁾
- (가)6 벌휴이사금 2년(↓295) 2월에 波珍滄 仇道와 一吉滄 仇須兮를 좌·우 軍主로 삼아 召文國을 정벌하였다. 군주의 이름은 여기

10) 이하 ↓의 표시는 수정된 연대를 나타낸 것이다.

11) 이상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서 비롯되었다.

(가)7 조분이사금 7년(↓346) 2월에 骨伐國王 阿瞞夫가 무리를 이끌고 항복해 오니, 저택과 토지를 주어 안치하고 그 땅을 郡으로 삼았다.

(가)8 첨해이사금 5년(↓358) 정월에 처음으로 南堂에서 정무를 보았다. 漢祗部 사람 夫道가 집이 가난했지만 아침하는 바가 없고 글씨와 계산을 잘해 당시에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왕이 그를 불러 阿滄으로 삼고 物藏庫의 사무를 맡겼다.¹²⁾

먼저 (가)1은 사로국이 진한 제소국을 복속하기 이전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고타군이란 6세기 초에 시행된 주군제 이후의 명칭으로서, 안동지역의 소국 즉 사랑별국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기사는 3세기 후반에 사랑별국이 사로국과 교섭한 기록으로서 각 소국의 특산물을 상호 교환한 것이며, 기록상으로는 당시 진한지역의 소국 간에 전개된 교섭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¹³⁾

(가)2는 사로국이 내부 군사력을 정비하는 조치로서 사로국의 국읍에서 읍락집단의 군사를 결집하려 한 것이다. 이는 소국 정복을 군사적 기반으로서, 사로국이 소국 정복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조치이다. (가)6은 좌우군주를 두어 소국 정복활동을 통해 증가된 군대를 효과적으로 관장하려 한 조치로 보인다. 즉 사로국의 핵심세력은 박씨왕실과 석씨왕실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왕실세력의 군사력이 사로국 군대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 군사력을 군주라는 전문적인 군사지휘관을

12) 이상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13)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 의하면 曹魏가 230년대에 삼한의 소국들을 통제하려는 정책을 시행하였을 때 대부분의 소국은 대방군과 교섭하게 하였으나, 진한 8국만은 낙랑군과 교섭케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진한 8국이 낙랑군과 교섭하였을 때 이를 주선한 유력국은 사로국이었다. 그러므로 사로국은 사랑별국과의 관계가 복속관계는 아니었으나, 우월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통하여 하나의 지휘체계로 통합하였던 것이다.

소국 정복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가)1 및 (가)7과 같이 진한 소국이 사로국의 우월권을 인정하면서 내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6과 같이 사로국이 직접 군대를 동원하여 정복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소국이 사로국에 내항하는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사료 나-1에 보이듯이 처음에는 사로국의 권위를 인정하였으나, 주변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로국의 세력권에서 이탈하였다가 사로국의 응징에 굴복하여 다시 그 세력권으로 편입된 경우다. 다른 하나는 (가)7의 경우로, 소국의 지배자가 무리를 거느리고 완전히 투항하여 자신의 지배기반을 사로국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정복된 소국 가운데 사로국에 반발하는 경우도 일어났는데, 사로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먼저 (가)3의 경우는 사로국의 권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부인한 예인데, 이에 대해 사로국은 소국의 지배기반을 해체하여 복속지배층을 사로국으로 강제 이주케 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음 (가)5의 경우는 복속 소국이 상당 기간 사로국의 권위를 인정한 예인데, 이 소국에 대해서는 (가)4와 같이 사로국왕이 순행하는 등 서로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로국이 박씨와 석씨의 양 세력이 병존하면서 서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을 때에는 복속 소국이 사로국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 세력권에서 이탈하려 하였다. 이 경우에도 사로국은 강력하게 응징하고 그 지배기반을 해체하여 소국의 지배층을 사로국으로 이주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분석해 보면 사로국의 복속 소국에 대한 통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세기 중엽 이후 사로국은 내부의 강력한 결속을 바탕으로 동남 해안지역을 장악하여 진한지역의 교섭을 주도하는 한편, 중국 등과 대외교섭을 전개하게 됨으로써 동해안지역과 내륙의 소국들

이 진한지역에서 사로국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변한의 금관국이 진한지역의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였고, 이에 사로국은 진한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처를 취하였다.¹⁴⁾

이 조처는 진한 제소국이 사로국의 권위를 인정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골별국이나 압독국과 같이 사로국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복속 지배층에 대해 소국지배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였다. 반면에 사랑별국¹⁵⁾이나 음즙별국과 같이 진한지역의 교섭주도권에 대한 사로국의 권위를 부정하고 다른 유력한 세력에 편입하려는 경우와, 실직곡국과 압독국 등과 같이 처음에는 사로국의 권위를 인정하였으나 사로국 내부나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세력권에서 이탈하려 할 경우에는 강력한 응징 조처를 취하였다. 즉 이들 소국의 지배기반을 박탈하였던 것이다.

2. 신라의 지방통치와 금석문

광개토왕대에 이르러 고구려와 백제의 충돌은 신라에게도 비화되었다. 신라는 399년에 침공한 왜군을 격퇴하기 위해 고구려에게 구원을 요청하였고, 이어 400년에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정이 단행되어 왜군을 격퇴하고 신라를 구원하였다. 광개토왕의 남정, 즉 신라구원전쟁은 신라에게는 위기의 극복이자 새로운 위기의 시작이었다. 중원고구려비에 보이는 新羅土內幢主¹⁶⁾라는 관직명은 신라 내정간섭의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00년의 신라구원전 이후 고구려가 신라 영내의 요소요소에 군대를

14) 선석열, 앞의 책, 2001, 136~145쪽.

15) 『삼국사기』 권45, 열전5 석우로전.

16)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中原高句麗碑』, 『韓國古代金石文』 1(고구려·백제·낙랑편), 1992, 44쪽.

주둔시시키고 신라의 국정에 대한 이모저모를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서 고구려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내정을 간섭하였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듬해 401년 고구려는 볼모 실성을 신라로 돌아가게 한 후 내물왕을 밀어내고 왕위에 즉위하도록 하였다.¹⁷⁾ 그 다음 실성왕은 즉위한 이후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물왕계 세력의 구심점을 없애고자 내물왕의 자식들을 축출해 갔으나, 마지막으로 놀지를 제거하려다 오히려 고구려의 견제를 받아 축출당하고 대신 놀지가 왕위에 즉위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내정간섭은 왕위계승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놀지왕의 즉위를 전후한 시기의 신라는 내부적으로 김씨 왕실 세력이 석씨 왕실세력의 견제에 의해 김씨 왕실집단 내부의 분열이 극대화되어 있었다. 놀지왕은 석씨왕실세력의 견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 왕족인 박씨집단을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인 상황 속에서 신라는 북쪽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는 없었다. 놀지왕이 즉위하자 두 왕제, 즉 고구려에 볼모로 간 복호와 왜국에 볼모로 간 미사흔을 구출하기 위한 대책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내)1 訥祗王이 즉위하자 변사를 얻어 왕의 아우들을 맞이해 오도록 하고자 하였다. 水洒村干 伐寶靺 · 一利村干 仇里洒 · 利伊村干 波老 세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불러 물었다. … 세 사람이 함께 말하기를 “신들이 듣기로는 敵良州干 朴堤上은 굳세고 용감하며 지모를 가지고 있어 전하의 근심을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고 하였다.¹⁸⁾

17) 선석열, 『신라 실성왕의 즉위과정-국제정세의 변동과 관련하여-』 『지역과 역사』 34, 2014, 118~120쪽.

18) 『삼국사기』 권45, 열전5 박제상전.

놀지왕이 고구려와 왜에 인질로 가있는 그의 두 아우를 데리고 오기 위하여 신라의 변경지역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村干들과 대책을 의논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놀지왕이 두 아우를 송환하기 위하여 자문을 구하는 대상이 재지세력이라는 점이다.

박제상의 경우 敵良州干 또는 敵羅郡太守¹⁹⁾로 되어 있다. 敵良州干이라 한다면 村干과 같이 재지세력이라 할 수 있으나, 敵羅郡太守라고 한다면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라는 해석이 된다. 박제상의 출자에 대해서는 왕경인으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와 지방민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왔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초기기록에 의문이 많은 점을 들어 박제상의 출자 기록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를 지방세력가로 보고 있다.²⁰⁾ 즉 파사왕과 그 5세손인 박제상 사이의 현격한 연대차이에 의문을 가지고, 박제상은 원래 지방세력이었으나 왕경에 와서 경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한편 박제상이 신라에 복속되어 있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중앙에 사민되어 정착한 존재로 파악하였다.²¹⁾ 그러나 박제상의 부인인 치술부인은 실성왕의 딸이었으므로,²²⁾ 실성왕의 부마이자 놀지왕의 동서였다. 그가 구출한 왕제 미사흔이 그의 딸과 혼인한 이후 그 후손이 왕비가 된 점도 박씨 왕족의 후예임을 방증하므로, 박제상의 출자에 대해 『삼국사기』에서 파사왕의 5세손으로²³⁾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²⁴⁾

4세기 중엽에 이르러 진한지역을 전부 장악함으로써 왕권이나 그를 둘러싼 지배집단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아직 전 영역을 직접 지

19) 『삼국유사』 권1, 기이1 내물왕 김제상조.

20) 金龍善, 「朴堤上小考」, 『全海宗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79, 601~604쪽.

21) 朱甫噉, 「朴堤上和 5세기초 新羅의 政治變動」, 『慶北史學』 21, 1998, 818~820쪽.

22) 『삼국유사』 권1, 왕력 제18 실성마립간조, “王郎瑯述之父”

23) 『삼국사기』 권45, 열전5 박제상전.

24) 宣石悅, 「朴堤上의 出自와 관등 奈麻의 의미」, 『慶大史論』 10, 1998; 앞의 책, 2001, 254~264쪽.

배할 정도는 아니었다. 특히 왕도의 지배집단이 통합되지 못하고 여러 部를 구성하여 상당한 정치적 독자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전 영역을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의 실현은 部の 변화와도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내부상태가 확실하지 못한 형편에 고구려와 백제, 가야 등 주변 강대세력의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의 복속세력의 기반을 해체하여 재편하는 것보다는 그를 그대로 온존시켜 주는 것이 지배에 훨씬 효과적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마립간시기의 지방지배방식에 대해 몇 가지 유형, 즉 ①의례적인 공납의 대가로 완전한 자치를 허용하는 유형, ②자치를 허용하면서 유력세력에 대해 중앙이 재편하는 유형, ③유력세력을 중앙으로 이주시키는 유형, ④군사요충지에는 중앙에서 군관을 상주시키고 자치를 허용하는 유형으로 나누는 견해²⁵⁾가 주목된다. 이 유형을 근거로 하여 신라의 지배방식에 적용해 볼 때, 앞의 박제상의 관직은 ④유형에 해당된다. 또한 신라의 지방지배방식 상에서는 위의 재지세력은 ②유형으로 된다.

이후 신라 중앙과 재지세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6세기 초반에 건립된 금석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3> 포항중성리신라비의 중앙과 재지세력

집단 구분	직명	출신지	인명	관등	비고
교시 집단	없음	喙部	習智	阿干支	교시자
	없음	沙喙(部)	斯德智	阿干支	々
	없음	沙喙(部)	尔抽智	奈麻	피교시자
	없음	喙部	本智	奈麻	々

25) 朱甫喙,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1998, 43~48쪽.

쟁인 집단	车子	喙(部)	沙利	없음	이하 车子
	"	"	夷斯利	없음	"
	評公?	喙 "	(評公)斯弥	없음	이하 爭人
	없음	沙喙(部)	夷須	없음	"
	없음	"	车旦伐	없음	"
	없음	喙(部)	斯利	壹伐	"
	없음	"	皮末智	없음	"
	없음	本波(部)	喙柴	干支	"
	없음	"	弗乃	壹伐	"
	없음	"	金評□	干支	"
	없음	"	祭智	壹伐	"
	使人	"	奈蘇	없음	"
	"	"	毒只	없음	"
조사 집단	道使	喙(部)	念牟智	없음	명령자
	"	沙喙(部)	鄒須智	없음	々
	없음	居伐	壹斯利	없음	피명령자
	없음	"	蘇豆	없음	々
	없음	古利村	仇鄒列支	干支	々
	없음	"	沸竹休	壹金知	々
	없음	那音支村	卜岳	干支	々
	없음	"	走斤	壹金知	々
	없음	"	玕伐壹	없음	々
탈취 집단	없음	?(部)	豆智	沙干支	탈취대표자
	없음	?(部)	日夫智	없음	々
사후 조처 관련 집단	없음	喙(部)	喙作民	沙干支	주관자
	使人	"	卑西牟利	없음	공고자
	典書	?(部)	与牟豆	없음	기록자
	(刻者)	沙喙(部)	心刀里	없음	각자

여러 특징 가운데 지방통치와 관련된 부분만 언급해 보겠다. 501년에 건립된 포항중성리비²⁶⁾에 의하면 교시의 주체는 국왕이나 갈문왕이 없

26) 이하 중성리비라 약칭.

이 2명의 阿干支이며,²⁷⁾ 2명의 내마가 교시를 수행하고 있다. 그에 대한 실무 명령자는 2명의 도사이며, 문제가 야기되어 도사에게 보고한 3개 촌의 재지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사는 주-군-행정촌 중에 행정촌에 거점을 두고 있는 지방관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중성리비에 보이는 도사는 상주하는 지역이 없어 지방관으로 보기 어렵다. 道使는 주요 官道가 통하는 요충에 파견되었던 使者로서²⁸⁾ 이 시기에 지방관은 단위지역이 아니라 보다 광역이면서, 또한 한 지역에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을 두루 감찰하는 존재로 이해된다.²⁹⁾ 이는 軍主가 파견되기 이전 지방을 통제하는 방식이었으며, 당시에 ① 유형이 가장 보편적인 지방통치방식으로서 의례적인 공납의 대가로 완전한 자치를 허용하는 대신에 도사가 광역으로 감찰하였다고 생각된다.

행정촌의 지배자인 촌주는 1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성리비에는 촌주가 없이 1촌에 2명의 유력자가 있음이 흥미롭다.³⁰⁾ 이들 재지세력은 각각 干支와 壹金知라는 관명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중앙에 干支 및 壹伐이³¹⁾ 보인다. 기존에 알려진 신라 외위체계와는 명칭조차 전혀 다르다. 전자의 관명은 재지세력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중앙에서 인정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비에서 볼 때 이들 2명은 하나의 촌에

27) 선석열, 「인명표기방식을 통해본 포항 중성리신라비」, 『인문학논총』 14-3, 2009, 124~126쪽.

28) 김재홍, 「新羅 中古期の 村制와 지방사회 구조」, 『韓國史研究』 72, 1991, 31~32쪽.

29) 이수훈, 「新羅 中古期州의 構造와 性格」, 『釜大史學』 12, 1988, 21~23쪽.

30) 중성리비의 촌에 대해 왕경 6부 각각에 예속된 노인촌류의 집단예민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노태돈, 「포항중성리신라비와 外位」, 『한국고대사연구』 59, 2010, 47쪽). <표 3>의 조사집단 내에 포함된 3개 촌의 대표자 가운데 居伐의 경우만 관명이 없고 나머지 촌의 대표자는 관명이 있으므로, 居伐만 노인촌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1) 干支 및 壹伐의 소지자에 대해 지방민이며 왕경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예속된 존재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으나(하일식, 「포항중성리신라비와 신라 관등제」, 『한국고대사연구』 56, 2009, 205~209쪽), 지방 재지세력층에게는 干支와 壹金知라는 관명을 띠고 있으므로 따르기 어렵다.

있었던 지배층이 아니라 중앙에서 복속지역을 재편하여 여러 자연촌을 하나의 행정촌 범위로 묶었는데, 재지지배층의 대표자를 干支라 하고 그 다음 유력자를 壹金知라 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영일냉수리신라비의 중앙과 재지세력

집단구분	직명	출신지	인명	관등	비 고
과거 교시집단	王 王	喙 (喙)	旻 夫智 乃 智	(習寶葛文王) (訥祗王)	前世二王
공론집단	葛文王	沙喙 (沙喙) (沙喙) 喙 (喙) 本彼 沙彼	至都盧 旻 德智 子宿智 尔夫智 只心智 頭腹智 暮旻智	阿干支 居伐干支 壹干支 居伐干支 干支 干支	此七王等共論 (가) 敎 (나) 別敎 (다) 別敎
조사집단	典事人 (耽須道使)	沙喙 (沙喙) (沙喙) 喙 喙 (喙) 沙喙	壹夫智 到盧弗 須仇休 心訾公 沙夫那 旻 利 蘇那支	奈麻	此七人
보증집단	村主	(珍而麻村) (珍而麻村)	史支 須支	干支 壹今智	
조사대상 집단		珍而麻村 (珍而麻村) (珍而麻村) (珍而麻村)	節居利 斯奴 末鄒 旻 申支		재산취득자 재산상속예정자 재산취득관련자 "

503년에 건립된 냉수리비³²⁾에 의하면 교시의 주체는 국왕이 없이 갈문왕을 비롯하여 七王等 즉 갈문왕을 포함한 7명의 干支群이 공론하여 교시하였다.³³⁾ 신라의 지방통치와 관련된 부분만 언급해 보면, 7명의

32) 이하 냉수리비라 약칭.

典事人이 교시를 수행하고 그 중에 도사가 포함되어 있다. 문제가 야기된 진이마촌의 촌주를 비롯한 재지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중성리비에서 살펴보았듯이 주-군-행정촌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냉수리비에 보이는 도사 역시 광역을 감찰하는 존재로 이해된다. 당시에 ①유형이 가장 보편적인 지방통치방식으로서 의례적인 공납의 대가로 완전한 자치를 허용하는 대신에 도사가 광역으로 감찰하였다.

진이마촌은 자연촌이 아닌 행정촌이지만,³⁴⁾ 2명이 모두 촌주³⁵⁾가 아니라 1명의 촌주와 또 1명의 유력자가 있음이 흥미롭다. 행정촌의 지배자인 촌주는 1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들 재지세력은 각각 干支와 壹金智라는 관명을 가지고 있어 기존에 알려진 신라 외위체계의 干支·壹伐과는 명칭이 다르다. 이 비에서 볼 때 이들 2명은 하나의 촌에 있었던 지배층이 아니라 중앙에서 복속지역을 재편하여 여러 자연촌을 하나의 행정촌 범위로 묶었는데, 재지지배층의 대표자를 干支라 하고 그 다음 유력자를 壹金(智)이라 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1)의 村干은 村主 干支로서 바로 그와 같은 대표자라 할 수 있다.³⁶⁾ 이러한 통치유형은 중성리비와 달리 냉수리비에는 촌주가 있음에서 ②자치를 허용하면서 유력 세력에 대해 중앙이 재편하는 유형에 해당된다.

524년에 건립된 울진봉평비³⁷⁾에 의하면 교시의 주체는 국왕인 매금왕과 갈문왕을 비롯하여 이하 12명의 干支群이 공론하여 교시하였다.

33) 선석열, 『영일냉수리신라비에 보이는 관등·관직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3, 1990, 199쪽.

34) 김재홍, 앞의 논문, 1991, 23~28쪽.

35) 김희만, 『迎日冷水碑와 新羅의 官等制』, 『慶州史學』 9, 1990, 27~28쪽. 이우태, 『포항 중성리신라비의 건립 연대와 성격』, 『浦項中成里新羅碑』, 문화재청·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58~59쪽. 강봉룡, 『新羅地方統治體制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37쪽. 조범환, 『迎日冷水碑를 통하여 본 村과 村主』, 『금석문을 통한 신라사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5, 17쪽.

36) 전덕재, 『新羅六部體制研究』, 일조각, 1996, 46쪽.

37) 이하 봉평비라 약칭.

신라의 지방통치와 관련된 부분만 언급해 보면, 6명의 大人이 교시를 수행하고 그 중에 2명의 도사가 포함되어 있다.

문제가 야기된 여러 촌의 재지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중성리비 내수리비와 달리 도사는 행정촌에 각각 1명이 상주하고 있어 감찰관이 아니라 지방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촌의 지배자인 촌주가 보이지 않아 이채롭다. 이들 지역은 노인촌이라 명시되어 있어 일반적인 주-군-행정촌과 다르다. 일반 행정촌이라면 아마도 異知巴 下干支가 촌주라고 할 수 있으나, 봉평비에서 볼 때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에는 촌주가 없다. 그러나 505년에 이미 주-군-행정촌 체제가 시행되었는데, 이들 노인촌 지역을 포함하여 주의 군주와 행정촌의 도사가 파견되어 해당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금석문 자료에 나타난 것을 비교해 보면 505년(지증왕 6년) 주-군-행정촌 획정과 함께 이사부의 실직주 군주 임명 등의 기록과 대조해 볼 수 있다. 중성리비와 냉수리비는 주-군-행정촌 획정 이전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봉평비는 그 후의 사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봉평비에서 유의할 점은 군주와 도사는 있으나, 당주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551년(진흥왕 13) 건립된 것으로 보는 명활산성작성비에서 신라의 금석문 가운데 郡이란 표기가 나오는 최초의 것이지만, 해당 지방관은 上人邏頭로 되어 있다. 540년(진흥왕 즉위)부터 550년(진흥왕 11) 이전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단양신라적성비에서 군주 외에 鄒文村幢主와 勿思伐城幢主와 같이 당주가 등장하고 있다. 505년부터 법흥왕때까지 주에는 군주가 군에는 당주가 없고 행정촌에 도사가 파견되었으며, 진흥왕대에 이르러 주-군-행정촌 체제를 갖추어 통치를 행하였다고 생각된다.

<표 5> 울진봉평비의 중앙과 재지세력

집단구분	직명	출산지	인명	관등	비고
所敎事 집단	寐錦王 葛文王	喙部	牟卽智		法興王 立宗葛文王
		沙喙部	徙夫智		
		本波部	△夫智	干支(?)	
		峯喙部	美斯智	干支(?)	
		沙喙部	而粘智	太阿干支(5)	
		(沙喙部)	吉先智	阿干支(6)	
		(沙喙部)	一毒夫智	一吉干支(7)	
		喙(部)	勿力智	一吉干支(7)	
		(喙部)	愼肉智	居伐干支(9)	
		(喙部)	一夫智	太奈麻(10)	
		(喙部)	一介智	太奈麻(10)	
(喙部)	牟心智	奈麻(11)			
沙喙部	十斯智	奈麻(11)			
(沙喙部)	悉介智	奈麻(11)			
조사집단	大人 (大人) (大人) (大人) 居伐牟羅道使 悉支道使	喙部	內沙智	奈麻(11)	이하 典事人
		沙喙部	一登智	奈麻(11)	
		(沙喙部)	男次	邪足智(17)	
		喙部	比須婁	邪足智(17)	
		(喙部)	卒次	小舍帝智(13)	
(喙部)	烏婁次	小舍帝智(13)			
처벌대상 집단		居伐牟羅 (居伐牟羅) (居伐牟羅) (居伐牟羅)	尼牟利 弥宜智 組只斯利 一△智	一伐(外8) 波旦(外10)	┌ ├ ├ ├ ├ └
		阿大兮村使人 葛尸條村使人 男彌只村使人	(阿大兮村) (葛尸條村) (男彌只村) (男彌只村)	奈介利 奈木利 翼條△西 於卽斤利	
조처집단	悉支軍主 書人 (書人) 新人 (新人) 立石碑人 (立石碑人) (立石碑人)	喙部	介夫智	奈麻(11)	博士
		(喙部)	牟珍斯利公	吉之智(14)	
		沙喙部	善文	吉之智(14)	
		喙部	述刀	小烏帝智(16)	
		沙喙部	牟利智	小烏帝智(16)	
		喙部	없음		
居伐牟羅	異知巴	下干支(外7)			
(居伐牟羅)	辛日智	一尺(外9)			

561년경에 건립된 진흥왕척경비인 창녕비에는 국왕의 교시에서 ‘大等與軍主幢主道使與村主’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중앙관 大等을 비롯하여 지방관 軍主幢主道使과 재지세력 村主 등의 체계적인 구분이 명확하여 주-군-행정촌의 지방통치체제를 갖추어 통치를 행하였다고 생각된다.

Ⅲ. 신라의 부산지배와 연산동고분군

1. 독로국의 복속시기 문제

앞 장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사로국이 진한 제조국을 정복한 시기는 3세기 말엽에서 4세기 전반 사이였지만, 부산의 거칠산국 즉 독로국은 사정이 다르다. 이제 부산지역의 독로국이 언제 신라에 병합되었는가를 관련 기록을 통해 검토해 보겠다.

(타)1 居道는 탈해이사금 때에 벼슬하여干이 되었다. 그때 于尸山國과 居柒山國이 [신라] 국경의 인근에 끼어 있어서 나라의 큰 격정거리가 되었다. 거도가 변경의 지방관이 되어, 몰래 병탄할 생각을 품었다. 매년 한 번씩 많은 말들을 張吐의 들판에 모아놓고, 병사들로 하여금 말을 타고 달리니 馬戲라 여겼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말아저씨라 불렀다. 두 나라 사람들이 이를 익숙히 보아 왔으므로, 신라의 평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여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에 [거도는] 군대를 일으켜 불의에 쳐서 두 나라를 멸망시켰다.³⁸⁾

(타)2 異斯夫는 성이 김씨이며, 奈勿王의 4세손이다. 智度路王[지증

38) 『삼국사기』 권44, 열전4 居道傳.

왕] 때에 지방관이 되어 居道의 권모를 답습하여 加耶를 속여서 멸망시켰다.³⁹⁾

(다)3 이 달에 사신을 보내 [내조해왔던] 己能末多 干岐를 전송하였다. 아울러 임나에 있는 近江毛野臣에 명하여, “[임나가] 아뢴 바를 잘 물어 서로 의심하는 점을 화해시켜라”라고 말하였다. … 이에 따라 신라는 다시 上臣 伊叱夫禮智 干岐(이사부)를 보내어 군사 3000 명을 거느리고 와서 칙언을 듣고자 하였다. 毛野臣이 멀리서 무기를 갖춘 군사 수천인이 있는 것을 보고, 웅천으로부터 임나의 己叱己利城에 들어갔다. 伊叱夫禮智 干岐는 多多羅의 들판에 이르러 돌아가지 않고 3개월이나 기다렸다. … 上臣이 4개의 마을을 약탈하고[分註: 金官, 背伐, 安多, 委陀의 네 마을이다. 一本에 多多羅, 須那羅, 和多, 費智의 네 마을이라 한다], 사람들을 모두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어떤 사람이 “多多羅 등의 네 마을을 약탈당한 것은 毛野臣의 잘못이다”라고 하였다.⁴⁰⁾

(다)1은 부산의 거칠산국이 우시산국과 함께 탈해왕 때에 거도에 의해 멸망하였다고 하였으나, 다른 소국 정복기록과 달리 兵馬 즉 기마전술로 정벌했다고 하는 점은 믿을 수 없다.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에 기병이 동원된 것은 4세기 이후에나 가능한 전투방식이기 때문이다.⁴¹⁾ 그렇다면 거칠산국 즉 독로국은 언제 신라에 의해 병합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4세기 후반설,⁴²⁾ 5세기 초엽설,⁴³⁾ 5세기 후반설⁴⁴⁾ 등

39) 『삼국사기』 권44, 열전4, 異斯夫傳.

40) 『日本書紀』 권17, 繼體紀 23년(529) 4월 是月條.

41) 申敬澈, 「古式鎧子考」, 『釜大史學』 9, 1985, 5~11쪽.

42) 崔秉鉉, 「新羅古墳 編年の 諸問題-慶州 月城路·福泉洞·大成洞古墳의 상대편년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30, 1993.

43) 李熙濬, 「낙동강 이동지방 4·5세기 고분자료의 定型성과 그 해석」, 『4·5세기 한일고고학』, 한일고고학공동연구회 심포지움, 1996.

44) 鄭澄元·洪潛植, 「釜山地域의 古墳文化-墓制와 高杯를 중심으로-」, 『釜大史學』 18,

이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이 編年案의 근거는 경주 황남대총 北墳의 年代觀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서 출토된 금관은 신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신라가 사로국을 모태로 고대국가로 성장하여 유일한 朴·昔·金 3성 왕통 가운데 김씨의 내물왕계에 의해 통합된 왕권이 성립되는 것은 눌지왕대(417~458)에 이르러서이며, 이때부터 내물왕계 김씨왕실이 왕위계승체계를 확립한 시기이다.⁴⁵⁾ 이를 문헌기록과의 관련을 통해 보면 왕권을 상징하는 금관이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5세기 중엽 이후부터이며, 신라가 그 영역 내에 재지세력에게 금동관·환두대도·과대 등의 위세품을 사여하는 시기도 5세기 후반대에 해당될 것이다.

(㉔)2와 (㉔)3의 사료는 가락국[남가라]의 멸망에 관한 기록들이다. (㉔)2의 이사부 열전에서는 지증왕(500~514) 때에 가야를 멸망시킨 것으로, (㉔)3의 『일본서기』 近江毛野臣 관련 기록에서는 529년에 신라의 상신 이사부가 남가라 즉 가락국의 4개 촌을 초락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기록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먼저 (㉔)3의 近江毛野臣 관련 기록인데, 近江毛野臣의 파견은 가락국이 아니라 실제로는 532년 가락국이 멸망한 이후 10년째 되던 541년 안라에 파견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⁴⁶⁾ 이는 또한 『일본서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기년의 혼란 및 오차에 기인한 것이므로,⁴⁷⁾ 近江毛野臣의 파견에 대해서는 달리 이해해야 한다. 近江毛野臣이 파견된 목적은 가락국 등의 멸망 위기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일본열도 내의 사건이자⁴⁸⁾ 야마토왜와 규슈왜의 주도권

1989.

45) 宣石悅, 앞의 책, 2001, 164~170쪽.

46) 三品彰英, 「<繼體紀>의諸問題」, 『日本書紀研究』 2, 塙書房, 1966, 24~29쪽.

47) 三品彰英, 위의 논문, 44~49쪽.

쟁탈전으로서 筑紫國王 磐井이 일으킨 전쟁, 소위 이와이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⁴⁹⁾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多多羅의 위치에 대해서이다. 다다라는 기존의 통설대로 부산의 다대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註)2의 이사부 열전 기록을 참조해 볼 때, 이사부의 신라군이 낙동강 하구의 황산진에서 낙동강을 건너 가야지역으로 진격한 사실을 감안하면 다다라가 부산지역에 위치한 것은 아니다. 이사부는 이미 낙동강을 건너 다다라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⁵⁰⁾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초기기록에는 가야관계기사가 있다. 가락국과 관련되는 기록은 신라와 가락국의 접점지역인 黃山, 黃山津, 黃山河(물금 방면) 등에서 이루어진 전투기록이 보인다. 이들 초기기록은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초엽까지로 되어 있는데, 군대가 1만명이나 동원되고⁵¹⁾ 포로가 1천명이라는 등으로 전하고 있다.⁵²⁾ 그런데 3세기 중엽의 상황을 기록한 동시대 기록인 중국의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조에서 변한·진한의 유력한 소국의 인구가 4~5千家에⁵³⁾ 불과한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병이 동원된⁵⁴⁾ 것은 4세기 이후에나

48) 林屋辰三郎, 『繼體・欽明朝內亂の史的分析』 『立命館文學』 88, 1952. 津田左右吉, 『日本古典の研究』, 岩波書店, 1963. 坂本太郎 『繼體紀の史料批判』 『日本古代史の基礎的研究』 上(文獻篇), 東大出版會, 1964. 吉田晶, 『古代國家の形成』, 岩波書店, 1975.

49) 선석열, 「신라의 남부가야 진출과 일본열도 왜의 대응」 『지역과 역사』 29, 2011, 72쪽.

50) 선석열, 위의 논문, 69쪽.

51)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지마이사금 5년(116) 8월, “遣將侵加耶 王帥精兵一萬以繼之 加耶城固守 會久雨 乃還”

52)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탈해이사금 21년(77) 8월, “阿漚吉門與加耶兵 戰於黃山津口 獲一千餘級 以吉門爲波珍漚 賞功也”

53)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전,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54)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지마이사금 4년(115), “春二月 加耶寇南邊 秋七月 親征加耶 帥步騎度黃山河 加耶人伏兵林薄以待之 王不覺直前 伏發圍數重 王揮軍奮擊 決圍而退”

가능한 전투방식이다.⁵⁵⁾ 따라서 필자는 초기기록에 보이는 황산지역에서의 전투기록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미루어 보아 (타)2와 같은 상황인 6세기 초엽에 전개된 신라의 가락국 공격기사로 이해하였다.⁵⁶⁾

그 이전 5세기 후반에 일어난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 (타)4 ① 慈悲麻立干 6(463)년 2월 왜인이 敵良城을 침입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왕이 伐智와 德智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왜가] 가는 길에 매복하여 기다렸다가 쳐서 크게 패퇴시켰다. 왕은 왜인이 여러 번에 걸쳐 강역을 침범함으로써, 국경 부근에 두 성을 쌓았다.
- ② 炤知麻立干 15(493)년 7월 臨海鎮과 長嶺峯⁵⁷⁾鎮의 두 군진을 두어 왜적에 대비하였다.
- ③ 동왕 22(500)년 3월 왜인이 長峯鎮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⁵⁸⁾

이들 기록은 낙동강 하구 및 동남해안에 왜병이 침공한 사건과 그에 대한 신라의 대비 기록이다. (타)4 ①에서 보듯이 일본열도의 왜는 황산진을 사이에 두고 양국이 대치한 상황 속에서 친선관계에 있던 가락국을 지원하기 위해 신라를 침공하였는데, 5세기 후반에 이르면 황산진을 통해 양산을 공격하게 되었다. 왜에게 있어 가락국은 대외적 선진문물의 전달자이자 주요 교통로였으며, 아울러 신라가 5세기 중엽 울산만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 방어체계가 이루어진 때문에 양산지역을 공격하게 된 것이다.⁵⁹⁾ (타)4 ②와 같이 신라는 463년에 쌓은 장봉성과 임해성((타)

55) 申敬澈, 앞의 논문, 1985, 5~11쪽.

56) 선석열, 『『三國史記』新羅本紀 加耶關係記事의 檢討와 그 紀年』 『釜山史學』 24, 1993, 33~36쪽.

57) 『삼국사기』의 원문 기록 가운데 보이는 오자이다.

58) 이상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4 ①)을 493년에 이르러 장봉진과 임해진의 두 군진으로 삼아 방어체계를 강화하였다. 이들 군진은 신라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해안의 변경에 대한 대비책이었다.

이들 기록을 통해 볼 때 부산 독로국이 언제 신라에 병합되었는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타)4 ①에서 왜병이 양산의 삼량성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보면 463년 당시에 부산의 독로국이 신라에 병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먼저 이때에 신라 변경 연변에 쌓은 장봉성과 임해성의 위치에 대해 현재의 경북 경주시 외동면 모화리로 비정하는 견해⁶⁰⁾와 장봉성을 경주시 추령-감포 방면, 임해진을 포항시 청하면 개포로 비정하는 견해⁶¹⁾가 있다. 이들의 견해에는 왜의 주요 침입로가 영일만이라는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수많은 왜구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영일만을 침입한 예는 거의 없고 주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해안 일대로 침입해 왔던 사실은 참조해 볼만 하다. 장봉진은 낙동강하구의 황산진 부근으로 추정되고 임해진은 부산의 기장 방면으로 비정해 볼 수 있다.⁶²⁾

(타)4 ③에서 왜병의 장봉진 함락 이후 더 이상 왜의 침입이 없어진 것은, 신라가 빠른 시일 내에 장봉진을 회복하였고 곧이어 (타)2와 (타)3과 같이 6세기 초엽 낙동강하구의 황산하를 사이에 두고 신라와 가락국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된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낙동강하구의 동쪽은 이미 신라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그 서쪽의 가야 제국에 대해 신라가 병합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의 기록을 통해 살펴볼 때 신라가 부산의 독로국을 병합한 시기는

59) 宣石悅, 「마립간시기 신라와 왜의 관계」 『釜大史學』 28·29합집, 2005, 277~282쪽.

60)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49쪽.

61) 전덕재, 「4~6세기 신라의 동해안지역 경영」 『한국 동남해안의 선사와 고대문화』, 2012, 171~175쪽.

62) 선석열, 「가야·신라시기 부산지역 대외교류의 변화와 발전」 『항도부산』 29, 2013, 123~125쪽.

460년대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고학적 연구성과에 의하면 복천 동고분군의 예를 들어 독로국의 병합시기를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라계의 出字形金銅冠이 출토된 同 21·22호분의 축조시기 문제이다. 즉 出字形金銅冠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라의 영향력이 미치다가 영역 내로 완전히 편입되었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시기에 대해 4세기 후반설, 5세기 초엽설, 5세기 후반설 등이 있어 의견이 분분하지만, 신라가 斯盧國을 모태로 고대 국가로 성장하여 유일한 朴·昔·金 3성왕통 가운데 김씨의 내물왕계에 의해 통합된 왕권이 성립되는 것은 訥祗王代(417~458)에 이르러서이다. 이때부터 내물왕계 김씨왕실이 왕위계승체계를 확립한 시기이므로,⁶³⁾ 왕권을 상징하는 금관이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5세기 중엽 이후부터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라가 그 영역 내에 재지세력에게 금동관·환두대도·과대 등의 위세품을 사여하는 시기는 자연히 5세기 후반대에 해당될 것이다.

2. 동래군의 치소와 연산동고분군

부산지역이 신라영역으로 편입된 이후 지방행정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료가 참조된다.

(라)1 東萊郡은 원래 居柒山郡인데, 景德王이 명칭을 改稱한 것으로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嶺縣이 둘이다. 東平縣은 본래 大飢縣인데, 景德王이 改稱한 것으로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機長縣은 본래 甲火良谷縣인데, 景德王이 改稱한 것으로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⁶⁴⁾

63) 宣石悅, 앞의 책, 2001, 164~170쪽.

64) 『삼국사기』 권34, 지리지1 양주 동래군조.

(라)2 靈鷲寺의 『寺中古記』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新羅 眞骨 제31대 神文王 때인 永淳 2년 계미(癸未: 683)[세주: 본문에 원년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에 재상 忠元公이 葦山國[세주: 곧 東萊縣이니 또는 萊山國이라고도 한다.]의 온천에 목욕을 한 뒤에 성으로 돌아올 때 屈井驛의 桐旨野에 이르러 쉬었다.⁶⁵⁾

6세기 전반에 이르면 신라는 해당 영역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하여 주-군-촌 체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라)1의 기록으로 보면 부산지역의 경우는 거칠산군, 대중현,⁶⁶⁾ 갑화량곡현으로 편제하였다고 전한다. 그 후 8세기 중엽의 경덕왕대에 부산지역의 군현 명칭을 거칠산군에서 동래군으로 고쳤다고 한 사실과 거도전의 기록을 참고할 경우 신라가 병합하기 이전의 부산지역의 국명이 거칠산국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신라는 삼국시대의 군현명을 경덕왕대에 개명할 경우 원래의 고유 표기를 한자식 표기로 고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비하여 부산지역의 경우 가야시기의 거칠산국이 신라에 병합된 이후에도 거칠산군으로 사용되었다가 그 명칭과 전혀 무관한 동래군으로 개명하였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삼한시기 이후 가야시기까지 부산지역은 김해 구야국에 못지 않는 세력이었음이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해당 국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동시대적 사서인 『삼국지』의 기록에 대해 사실성 여부가 논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거칠산국과 동래군이라는 지명을 참고할 경우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

65) 『삼국유사』 권3, 제4 탐상 영축사조.

66) 대중현 즉 후일의 동평현이 원래부터 독로국의 영역이 아니고 후대에 개편되어 동래군으로 편입되었다는 견해가 있다(김용성, 『연산동 고총의 성격』 『연산동 고총고분과 그 피장자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부산대학교박물관, 2016, 73쪽). 동평현을 양산의 임내지역으로 추정한 것은 나말여초의 정치적 상황에서 야기된 사실일 뿐이며, 삼국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진전에 보이는 국명 가운데 가장 근접한 것은 독로국과 동래군일 것이다. 바로 『삼국지』 위서동이전 변진전의 기록과 관련해 볼 때 삼한시기의 부산지역에는 독로국이 존재하였다.

(태)1에 보이듯이 신라에 병합된 이후에는 거칠산군으로 고쳐졌다가 8세기 중엽 경덕왕대에 이르러 거칠산군을 동래군으로 개명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부산지역의 고유 국명인 독로국으로 환원되었다. 따라서 고대 부산의 원래 국명은 거칠산국이 아니라 독로국이였다.⁶⁷⁾ 또한 거칠산군이든 동래군이든 그 치소는 여전히 동일한 연제구 지역이었음이 밝혀졌다.⁶⁸⁾ 이는 신라의 직접지배를 받을 당시 부산지역의 중심 치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고고학적 연구성과와도 관련지어 독로국과 거칠산국의 문제를 잠시 살펴보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5세기 후엽 신라에 복속되기까지 독로국의 중심지는 복천동고분군 축조집단이었고, 이후부터 6세기 전엽까지 주도권은 연산동고분군 축조집단으로 옮겨갔다. 이러한 이동은 독로국 주도 세력의 교체가 아니라 해당 축조집단이 복천동에서 연산동으로 옮겨 간 것⁶⁹⁾으로 볼 수 있다. 영남지역의 토기문화에서 볼 때 이 시기 부산지역은 친신라계 가야의 일부 세력으로 변모하였다. 즉 이들 세력이 신라의 정치연합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으로 완전히 복속

67) 선석열, 「가야시대 부산의 대외교류」 『향도부산』 18, 2002, 290쪽.

68) 동래 고읍성 터가 부산지방병무청 부지에 포함되면서 2002년 동의대학교 박물관이 시굴 조사를 실시하여, 토성 연장 96m와 우물 4개소가 조사되었다. 또한 포스코 더샵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경남문화재연구원이 2003년에 시굴 조사, 2005년에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관측 토성 벽 135m가 조사되었다(동의대학교 박물관, 『釜山望美洞 東萊古邑城』, 2006 ; 경남문화재연구원, 『東萊 古邑城址』, 2007). 관련 유구나 유물로 볼 때 동래고읍성의 상한은 통일신라시대인 8~9세기까지 시기를 올릴 수 있으며, 1021년(현종 12) 때에 동래군성(東萊郡城)을 수축하였다는 기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읍성이 고읍성이 폐허가 된 원인은 잦은 왜구의 침입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나동욱, 「동래 고읍성 터」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

69) 金斗喆, 「高塚古墳時代の蓮山洞古墳群」 『考古廣場』 19, 2016, 69~71, 78~82쪽.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치적인 수장권은 인정받고 있었다⁷⁰⁾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대비해 보면, 이러한 전승을 재음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원래 복천동고분군 축조집단은 독로국의 중심 세력으로 존재하였는데, 신라에 병합된 이후의 시기에는 거칠산의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연산동고분군을 축조하였다. 이로써 신라의 군현으로 편제되었을 때 郡名을 居柒山郡이라 하였으며, 거도전의 전승에서는 거칠산군의 이름을 따서 부산지역의 國名을 居柒山國이라고 전하였던 것이다.⁷¹⁾

앞서 언급했듯이 신라는 정복한 소국에 대해 직접지배를 관철한 시기는 진한 제소국의 정복시기가 아니었다. 신라의 국내외 상황, 특히 5세기 전반 고구려의 내정간섭을 받게 되어 집권적인 고대국가로서의 지배체제를 갖춘 것은 아니었다. 신라는 진한의 소국을 정복하여 각 소국의 지배기반을 해체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지배를 관철하는 데에는 시간적인 과정이 상당히 길었던 것이다.

460년대 이후 신라의 부산지역에 대한 통치는 간접지배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의 일련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신라는 왜의 침략을 막기 위해 부산과 양산지역에 2개의 성을 축성하고 방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임해진과 장봉진 두 군진을 설치하였다. 두 성과 두 군진은 양산과 기장지역에 설치하였지만, 부산의 중심지역에 설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앞 절의 사료 (㉮)2 (㉮)3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증왕 때부터 치열하게 전개된 금관가야 정복과정에서 공방전을 벌인 다다라는 부산지역이 아니라, 낙동강을 사이에 둔 양산에서 바라보는 김해지역이었다. 이와

70) 申敬澈, 앞의 논문, 1995, 46~48쪽.

71) 선석열, 앞의 논문, 2002, 289~290쪽.

같이 중대한 상황에서 부산지역은 신라가 460년대 이후부터 여전히 신라의 간접지배 아래에 있었다. 532년 금관가야가 신라에 투항한 이후부터 부산지역도 신라의 직접적인 통치 하에 군현으로 편제되었던 것이다.

신라의 지방통치과정에서 볼 때 505년에 주-군-행정촌을 획정하였으나, 실제로는 524년에 건립된 봉평비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군주와 도사가 파견되었을 뿐이다. 진흥왕대 건립의 명활산성작성비에서 군 명칭이 처음 보이고 단양신라적성비에서 군주 외에 당주가 등장하고 있다. 즉 진흥왕대에 이르러서야 주-군-행정촌 체제를 갖추어 통치를 행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당시 부산지역도 군-행정촌으로 편제되고 지방관과 군대가 파견되어 일반적인 지방통치체제에 편입되었을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신라 지방통치의 정비과정을 통해 부산지역의 동향을 살펴 보았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는 3세기 말엽부터 4세기 전반까지 진한 제소국을 복속하여 신라국가로 성립되었으나, 복속지역을 곧장 직접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하고 간접지배로 유지하였다. 그것은 4세기 후반의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변화 속에 휘말려들었으며, 5세기 전반의 신라는 고구려의 내정간섭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다.

눌지왕의 자립 이후 신라는 지배층이 일치단결하고 430년대에 나제 동맹이 체결되어 국내외적으로 안정이 되어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지배체제가 정비되어갔다. 505년 주-군-행정촌을 획정한 이후부터 군주와 도사를 파견하여 직접적인 지방통치가 행해지기 시작하였다. 창녕비

에 보이는 바와 같이 ‘大等與軍主幢主道使與村主’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540년대 이후에 이르러 중앙관을 비롯하여 지방관과 재지세력의 체계적인 구분이 명확하여 주-군-행정촌의 지방통치체제를 갖추어 통치를 행하였다고 생각된다.

부산지역에는 삼한시대부터 독로국이 존재하였다. 『삼국사기』 열전의 거도전에 의거하여 거칠산국 즉 독로국이 서기 1세기 후반에 신라에 정복된 것이 아니었다. 신라가 왜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463년에 신라가 변경 즉 양산의 장봉성과 기장의 임해성을 축조하였다는 기록에서 부산지역은 460년대에 병합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방통치유형은 ④유형 즉 군사요충지에는 중앙에서 군관을 상주시키고 자치를 허용한 것으로 된다. 493년에 이르러 장봉진과 임해진의 두 군진으로 삼아 방어체계를 강화하였음에도, 기장지역을 제외한 부산지역은 여전히 신라의 간접지배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독로국의 중심인 연산동고분군을 비롯한 동래지역은 독자적인 세력으로 존재하다가 532년 금관가야가 신라에 투항한 이후 신라의 직접적인 통치 하에 거칠산군으로 편제되었던 것이다. 금석문의 지방통치 관련 자료를 통해 보면 신라의 직접적인 부산지역 통치는 540년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은 문헌사의 시각에서 다룬 내용이다. 460년대부터 540년대까지 부산지역의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동향에 대해서는 복천동고분군이 나 연산동고분군과 같은 부산지역의 고고학적인 연구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사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지』

『일본서기』

2. 저서

김용성, 『신라 고고학의 탐색』, 진인진, 2015.

金哲垓, 『韓國古代社會研究』, 지식산업사, 1975.

선석열, 『신라국가성립과정연구』, 혜안, 2001.

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일조각, 1986.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李鍾旭,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영남대학교출판부, 1980.

이희준,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2007.

전덕재, 『新羅六部體制研究』, 일조각, 1996.

千寬宇, 『古朝鮮·三韓史研究』, 일조각, 1989.

崔在錫, 『韓國古代社會史研究』, 일지사, 1987.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韓國古代金石文』 1(고구려·백제·낙랑편), 1992.

吉田晶, 『古代國家の形成』, 岩波書店, 1975.

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井上秀雄, 『新羅史基礎研究』, 東大出版會, 1974.

坂本太郎, 『日本古代史の基礎的研究』 上(文獻篇), 東大出版會, 1964.

3. 논문

강봉룡, 『新羅地方統治體制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강중훈, 『新羅 上古紀年の再檢討』 『韓國史論』 26(서울대 국사학과), 1991.

金光洙, 『新羅 上古世系の再構成 試圖』 『東洋學』 3, 1973.

- 김대환, 「부산지역 금관가야설의 검토」 『영남고고학』 33, 2003.
- 김두철, 「연산동고분군과 복천동고분군」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 부산대학교박물관, 2013.
- 金斗喆, 「高塚古墳時代の 蓮山洞古墳群」 『考古廣場』 19, 2016.
- 김용선, 「朴堤上 小考」 『全海宗博士華甲紀念論叢』, 일조각, 1979.
- 김용성, 「연산동 고총의 성격」 『연산동 고총고분과 그 피장자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 부산대학교박물관, 2016.
- 김재홍, 「新羅 中古期の 村制와 지방사회 구조」 『韓國史研究』 72, 1991.
- 金哲垞, 「新羅 上古世系와 그 紀年」 『歷史學報』 17·18합집, 1962.
- 김희만, 「迎日冷水碑와 新羅의 官等制」 『慶州史學』 9, 1990.
- 노태돈, 「포항중성리신라비와 外位」 『한국고대사연구』 59, 2010.
- 선석열, 「영일내수리신라비에 보이는 관등 · 관직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3, 1990.
- _____, 「가야시대 부산의 대외교류」 『항도부산』 18, 2002.
- _____, 「마립간시기 신라와 왜의 관계」 『釜大史學』 28·29합집, 2005.
- _____, 「인명표기방식을 통해본 포항 중성리신라비」 『인문학논총』 14-3, 2009.
- _____, 「신라의 남부가야 진출과 일본열도 왜의 대응」 『지역과 역사』 29, 2011.
- _____, 「가야·신라시기 부산지역 대외교류의 변화와 반전」 『항도부산』 29, 2013.
- _____, 「신라 실성왕의 즉위과정-국제정세의 변동과 관련하여-」 『지역과 역사』 34, 2014.
- 申敬澈, 「古式鎧子考」 『釜大史學』 9, 1985.
- _____, 「김해성동 · 동래복천동고분군 점묘-금관 가야 이해의 일단-」 『부대사학』 19, 1995.
- 李基白, 「三國時代 佛教傳來와 그 社會의 性格」 『歷史學報』 6, 1954.
- 이수훈, 「新羅 中古期 州의 構造와 性格」 『釜大史學』 12, 1988.
- 이우태, 「포항중성리신라비의 건립 연대와 성격」 『浦項中成里新羅碑』, 문화재청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 李仁哲, 「新羅 上古世系의 新解釋」 『清溪史學』 4, 1987.
- 이희준, 「낙동강 이동지방 4·5세기 고분자료의 定型性과 그 해석」 『4·5세기 한일고고학』, 한일고고학공동연구회 심포지움, 1996.
- 전덕재, 「4~6세기 신라의 동해안지역 경영」 『한국 동남해안의 선사와 고대문화』, 한국상고사학회, 2012.
- 鄭澄元·洪普植, 「釜山地域의 古墳文化-墓制와 高杯를 중심으로-」 『釜大史學』 18,

1989.

조범환, 「迎日冷水碑를 통하여 본 村과 村主」『금석문을 통한 신라사연구』, 동북아 역사재단, 2005

주보돈, 「朴堤上과 5세기초 新羅의 政治變動」『慶北史學』 21, 1998.

_____, 「가야사 새로 읽기」『가야 문화권 실체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2014.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上)」『韓國學報』 2, 1976.

崔秉鉉, 「新羅古墳 編年の 諸問題-慶州 月城路·福泉洞·大成洞古墳의 상대편년을 중심으로-」『韓國考古學報』 30, 1993.

崔在錫, 「新羅王室의 王位繼承」『歷史學報』 98, 1983.

하일식, 「포항중성리신라비와 신라 관등제」『한국고대사연구』 56, 2009.

今西龍, 「新羅史通說」『新羅史研究』, 國書刊行會, 1933.

末松保和, 「新羅上古世系考」『(京城帝大)史學論叢』, 1938.

三品彰英, 「<繼體紀>의 諸問題」『日本書紀研究』 2, 塙書房, 1966.

林屋辰三郎, 「繼體·欽明朝內亂의 史的 分析」『立命館文學』 88, 1952

井上秀雄, 「新羅朴氏王系の 成立」『朝鮮學報』 48, 1968.

4. 기타

동의대학교 박물관, 『釜山望美洞 東萊古邑城』, 2006.

경남문화재단연구원, 『東萊 古邑城址』, 2007.

나동욱, 「동래 고읍성 터」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투고일: 2017.06.20. 심사완료일: 2017.07.04. 게재 확정일: 2017.07.20.

| Abstract |

Local Rule of Silla and Yeonsandong Tombs
in the 6th Century

Seon, Seok-Yeol

Silla occupied Jin-han chiefdom societies(辰韓 諸國) from the end of the 3rd century to the beginning and grew into an ancient territorial state. But Silla did not directly rule out the conquest area, and maintained its indirect dominance. Silla implemented four indirect dominance, a tributary payment which was the most common rule among them.

The reason was that Silla stayed under the intervention of Goguryeo in the first half of the 5th century. After King Noolji's reign, Silla was reorganized with a unified hierarchy of rulers, was reorganized as a controlling system centered around the king. After the implementation of local system in 505, Silla began direct regional rule by sending officials and armed forces to provincial areas. Based on the inscriptions in connection with local rule, Silla had a local reign system and exercised local rule since 540s.

Although the Busan area as Dokroguk was incorporated into Silla in 460s, the Busan area excluding Kijang was still indirectly ruled by Silla. Silla used Kijang as a naval base Imhaejin to prevent from invasion of ancient Japan. Dongnae area including Yeonsandong tombs as the center of Dokroguk was organized under direct rule of Silla since Geumgwan Gaya surrendered to Silla in 532.

In conclusion, Silla was able to systematically reign Dokroguk by 540s, the former Busan area maintained its own identity. Therefore, Yeonsandong tombs under 540s must be the remains of Gaya's cultural heritage.

Keyword: Silla's Indirect Rule, Systematical Reign, Dokroguk, Yeonsandong Tombs, the Remains of Gaya's cultural Heritage